

# 방송시간 자율화와 관련된 정책적 논의

이 은 미 (방송위원회 연구위원)

방송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케이블TV, 위성방송은 이미 100여개의 채널을 제공하고 있고, 방송과 통신의 융합서비스인 DMB은 이미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IPTV도 서비스 실시를 앞두고 있다. 새롭게 나타나는 융합서비스는 시,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언제 어디서나 시청자를 공략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수백 개의 채널이 시청자 주위를 맴도는 환경에서 이제는 어느 한 매체의 일방적인 우월적 지위와 독주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본 논의에서는 오랫동안 논란을 거듭해왔던 지상파방송의 방송시간 자율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입장들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1. 지상파 방송 운용시간 규제와 운용현황

### 1) 지상파 방송운용시간의 변화

지상파방송의 방송시간 규제는 텔레비전 개국 이후 지금까지 수차례의 변동을 겪으면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지상파방송은 개국 이후 5년간은 저녁방송만 허용되었다. 아침방송은 1967년 3월 처음 실시되었다가 그 해 11월 전력사정으로 중단되었고, 다시 1969년 4월 다시 재개되었다가 1973년 제1차 오일쇼크로 전면 폐지되었다. 아침방송이 다시 시작된 것은 1980년대 들어서였다. 고교생을 위한 아침방송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다가 1981년 5월부터 전면적으로 아침방송이 재개되었다. 이후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점차 주말과 평일 심야시간을 1시간 연장하였고 1996년 3월에 아침방송이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2시간 더 연장되었고, 이듬해인 1997년 오후방송 시작이 오후 5시에서 4시로 확대되었다. 2001년 10월 한국방송협회는 방송운용시간 자율화를 건의하였고, 이듬해 방송협회는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다시 방송운용시간 자율화를 건의하였다. 이에 방송위원회는 2002년 한, 일 월드컵 전후로 45일 동안 낮 시간을 전면 자율화하였고 월드컵 경기 진행기간 동안 24시간 방송

운용시간을 한시적으로 자율화하였다. 매년 지상파중앙방송사업협의회와 방송협회는 방송운용시간의 자율화를 건의해 왔으며, 2005년 6월 방송협회는 다시 방송 운용자율화를 즉각 도입해 줄 것을 건의 하였다.

## 2) 지상파 방송시간 운용기간 규제의 법적 근거

### (1) 법적 근거

전파법 제 21조 제 4항, 제25조 제 2항, 전파법 시행령 제 15조 제1항의 전파법 시행규칙 제 7조 제1항 및 별지 제 9호 서식에 의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국허가증에 방송운용 허용시간을, 부관사항에는 방송시간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KBS, MBC 및 계열사, SBS 및 지역민영방송의 방송국허가증의 운용허용시간은 16:00-익일 01:00이며, 토요일은 06:00-익일 01:00까지 평일은 일일 15시간, 토, 일요일은 일일 19시간이다.

방송국허가증 부관사항에는 수시편성에 따른 운용허용시간은 방송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 (2) 승인절차

방송위원회는 위의 법에 따라 2000년 5월 ‘방송시간연장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신

~~“방송시간연장신청을 방송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방송사가 방송시간 연장신청을 할 경우는 해당 프로그램명, 프로그램의 성격, 연장시간 및 연장사유 등을 기재하여 방송시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일시 3일전에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방송위원회는 이를 접수하여 ‘방송시간 연장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방송운용허용시간제도의 취지 부합여부를 판단하여 승인가부를 통보한다. 방송시간 연장승인을 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방송시간 연장승인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은 2001년 5월, 2002년 6월 두 차례 개정을 통하여 운영되어오다 2005년 2월에 대폭적으로 개정되었다. 2001년 개정 업무처리지침에서는 운영허용시간을 넘는 고정 편성 프로그램과 영화, 코미디, 쇼 등의 연예오락 프로그램과 어린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프로그램의 낮 시간대 편성을 제한하고, 종일방송과 유사한 형태의 편성과 스포츠 프로경기의 녹화중계나 재방송은 제한하였다.

지난 2월에 개정된 방송시간 연장승인은 승인심사와 관련된 절차를 간소화하고 승인대상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규제를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방송시간 연장지침 주요 개정 내용

절차의 간소화	긴급방송의 경우 사후 신청가능, 반복편성 프로그램의 경우 일괄신청가능
승인대상 프로그램 추가	공익성 프로그램(공공기관 기념행사, 지역국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중앙방송사가 송출,.....)
낮시간 종일방송허용시기 구체화	국가적 행사, 긴급편성, 특집 프로그램등..
장르에 따른 승인심사기준 삭제	교양 및 다큐프로그램 일반에 대해 연장승인을 허용하는 현행규정 삭제
낮시간 스포츠 편성에 관한 승인 기준	아마추어, 민속스포츠, 프로스포츠 년6회 편성
낮시간 화면해설 드라마방송 편성에 관한 승인기준	드라마편성의 경우 화면해설방송에 한해 허용

### 3) 방송시간 규제 이유

방송시간을 규제했던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들 수 있다.

첫째, 사회적 환경과 경제적 이유이다. 과거 어려운 사회, 경제적 여건에서 낮 시간이나 심야시간 방송으로 인한 전력의 낭비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방송시간을 제한했다.

둘째, 타 매체와의 관계 반영이다. 케이블 TV 도입초기에 지상파방송의 낮방송과 심야방송은 케이블TV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후발산업인 케이블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일정기간 지상파방송의 방송시간 연장을 보류하였다.

셋째,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에 대한 우려이다. 지상파방송의 제작능력을 고려할 때 인력이나 제작여건의 개선 없이 단순히 시간만을 연장했을 경우 재방송위주의 프로그램을 편성하게 되어 전체적인 프로그램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 4) 방송시간 연장 현황

방송시간 제한에 따라 실제로 지상파 방송사들은 시간연장 승인신청을 통해 방송시간

을 연장 운영하고 있다.

2000년 통합방송법 개정에 따른 방송위원회 출범후 지상파방송사의 방송시간은 2000년도에는 낮시간 1시간 52분, 2001년도에는 2시간 23분, 2002년도에는 2시간 24분 연장되었으며, 밤시간은 2000년, 2001년 약 1시간, 2002년도 1시간 24분으로 증가되었다. 낮시간과 밤시간을 합치면 1일 3시간에서 4시간씩 방송시간이 연장 운영되었다.

2000년에서 2001년까지 1년 동안의 방송시간 연장 회수를 보면, KBS가 795건, MBC가 1052건, SBS가 897건이며, 연장시간은 KBS1은 776시간 55분으로 1주간 약 15시간 연장 운행 했으며, KBS2는 613시간 15분으로 1주일간 12시간 연장 운행했다. MBC는 연간 총 1028시간 20분으로 1주일간 약19시간을 연장했고, SBS는 889시간으로 1주간 17시간 연장방송했다. (최충웅, 2004)

최근 분석자료에 따르면 2005년 1월부터 5월까지 지상파3사의 일일 평균 연장방송시간은 3시간 15분으로 나타났으며, 일일평균 연장방송건수는 3.4건으로 나타났다.(심재철 의원 홈페이지, 2005)

방송시간 연장 현황에서 보듯이 그동안 방송3사는 하루에 3시간 이상씩 연장방송을 해 왔으며 이것은 결과적으로 지상파방송사가 방송시간을 3시간 늘려 방송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 2. 방송시간 자율화에 대한 관련 쟁점

방송시간 자율화에 대해서는 수년 동안 많은 논란을 거듭해 왔다. 지상파방송의 방송시간 연장이 광고채원 배분문제로 귀착됨에 따라 관련 기관, 경쟁매체간의 상이한 의견과 입장차이로 첨예한 대립의 각을 세워 왔다. 지상파 방송시간 자율화문제는 각 단체와 매체간의 이해관계가 갈리면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뚜렷이 대비되고 있다. 방송시간 자율화를 요구하는 지상파방송과 지상파방송의 광고시간확대를 환영하는 광고단체는 지상파의 방송시간 자율화에 찬성입장을 보이고, 광고수입의 축소를 염려하는 경쟁매체인 케이블방송과 인쇄매체의 경우 방송시간 자율화에 적극적인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다.

### 1) 방송시간 자율화 찬성 입장

지상파방송사들은 매년 방송시간의 자율화를 건의하고 있다. 지상파방송사들은 중앙방송사 사장단회의, 방송사업자 실무협회의, 한국방송협회, 세미나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방송시간의

자율화를 건의하여 왔다. 지상파방송사의 방송시간의 자율화를 요구하는 배경은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된다.

(1) 방송환경의 변화

- 현재의 방송환경은 과거의 지상파 단일방송체제에서 벗어나 케이블TV, 위성방송, 인터넷 방송 등 24시간 종일방송체제가 보편화되어 방송시간규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 다매체, 다채널시대에 전반적인 규제완화추세에서 방송편성과 운영에 대해 시간적 제약을 가하는 것은 명분이 부족하다.

(2) 수용자 복지 제고

- 유료방송에 가입하지 않은 많은 시청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종일 시청할 기회를 제공하여 보편적 서비스를 제고 할수 있다.
- 낮시간에 이동율이 적은 퇴직자, 노령층, 가정부부들에 대한 대 시청자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다.

(3)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인터넷 시대에 시간을 구애받지 않는 자유직업과 재택근무의 확대로 24시간 활동인구가 증가하여 낮과 심야시간의 시청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재택율이 높아지고 낮 동안에도 TV시청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 주 5일제 근무제 실시로 여가매체로서 보편적인 서비스를 담당할 지상파방송에 대한 다양한 역할이 요구된다.

(4) 지상파방송의 경쟁력 강화

- 방송시장의 세계화에 따라 24시간 방송체제를 갖춘 외국방송의 국내진출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과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 편성의 다양성과 융통성을 확보하여 전반적인 방송의 질 향상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

2) 방송시간 자율화 반대 입장

지상파 방송시간의 자율화에 대해서 케이블방송, 인쇄매체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다. 방송협회가 방송위원회에 <방송시간 운용 자율화 건의문>을 제출하면, 그에 뒤따라 케

입장은 지상파방송의 시간 연장은 곧 지상파의 광고시장지배력에서 결사적으로 반대한다. 한편 시민단체는 프로그램 질 저하의 우려가 있다. 그러나 반대하는 입장도 궁극적으로 방송운용시간은 방송사끼리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만, 미디어징규제를 통해 경쟁력이 약한 매체부터 육성할 필요가 있다. 지상파 방송의 자율화 관련 입장은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된다.

지상파 방송시간이 확대되면 방송사끼리 경쟁력이 강화되어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등 후발주자들의 발목을 잡는다는 우려가 있다.

지상파 방송시간의 확대는 경쟁관계에 있는 신문 등 인쇄매체산업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지상파 방송시간이 확대되면 방송사끼리 경쟁력이 강화되어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등 후발주자들의 발목을 잡는다는 우려가 있다.

지상파 방송시간이 확대되면 방송사끼리 경쟁력이 강화되어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등 후발주자들의 발목을 잡는다는 우려가 있다.

지상파 방송시간이 확대되면 방송사끼리 경쟁력이 강화되어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등 후발주자들의 발목을 잡는다는 우려가 있다.

케이블방송이나 인쇄매체의 시장지배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있다. 지상파 방송시간이 확대되면 방송사끼리 경쟁력이 강화되어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등 후발주자들의 발목을 잡는다는 우려가 있다.

(1) 매체간 균형발전 저해

- 지상파가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면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등 후발주자들의 발목을 잡는다는 우려가 있다.
- 지상파방송의 방송시간이 확대되면 방송사끼리 경쟁력이 강화되어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등 후발주자들의 발목을 잡는다는 우려가 있다.

(2) 국가적 자원 낭비

- 케이블과 위성 등 유료방송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면 불필요한 자원을 낭비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3) 프로그램의 질 저하

- 방송시간이 확대될 경우 프로그램의 질이 하락할 것이다.
- 늘어난 시간을 오락 프로그램으로 채울 경우 오히려 프로그램 다양성이 훼손되어 시청자 복지의 훼손을 가져올 것이다.

### 3. 방송시간 자율화 필요성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가입율이 70%에 달하고 위성 DMB 서비스가 실시되었고, IPTV, 와이브로(휴대 인터넷)등의 신규서비스들이 서비스 준비를 하고 있고, 다양한 유형의 방송과 통신 융합서비스들이 시, 공간을 초월하여 시청자에게 다가가고 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은 방송은 물론 통신의 개념까지 바꾸며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정책도 총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지상파 방송의 방송시간 자율화 문제도 단기적이고 목전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송의 발전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고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천개 이르러 지금 이느 바속시가 규제는 저한이 으쳐서이니, 과전 거쳐헤던 서으한도과, 세

11.  $\overline{Z_{\alpha}(\mathcal{P})} \subseteq \overline{Z_{\beta}(\mathcal{P})}$ ,  $\overline{Z_{\beta}(\mathcal{P})} \subseteq \overline{Z_{\gamma}(\mathcal{P})}$ ,  $\overline{Z_{\gamma}(\mathcal{P})} \subseteq \overline{Z_{\delta}(\mathcal{P})}$ ,  $\overline{Z_{\delta}(\mathcal{P})} \subseteq \overline{Z_{\epsilon}(\mathcal{P})}$ .

서비스의 시청점유율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현재 케이블방송은 지난 10년 동안 괄목한 성장을 이루어 디지털화로 전환하면서 방송, 통신 융합을 선도하는 매체로 거듭나고 있고, 위성방송은 지상파방송 재전송이 허용되면서 안정적인 가입자 확보를 달성하고 있다. 이런 추세를 볼 때 지상파방송의 독점적 지배력은 지속되기 힘들 것이며 유료방송에 대한 상대적인 경쟁우위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방송시간이 연장되면 지상파 광고수입은 늘어나는 것은 분명하나 낮 시간대는 광고요금도 저렴하고 판매율도 낮아 광고매출액은 타 경쟁매체에 영향을 줄 만큼 큰 것은 아니다. 2003

년 방송시간이 연장된 경우 광고매출은 연간 372억 정도로 방송광고총매출액의 1.4% 범위 내

에서 가정하기로는 무리가 따른다. 금년에 들어 전반적으로 지상파 방송광고매출액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 추세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특히 새로운 매체의 출현으로 방송 시장은 더 세분화될 것이며 광고시장 자체도 글로벌화 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국내방송 광고매출액은 줄어든 것이며 지상파방송도 방송시간 연장으로 제작비이상의 광고수익의 확보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지상파방송시간의 연장이 지상파방송의 광고독점을 심화시키거나 타경쟁매체의 광고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미미하리라 보여진다.

이제는 지상파방송이 유료방송에 비해 언제까지 경쟁우위를 지속할 것인가를 신중히 검토할 시점이며 그에 따른 균형된 정책집행이 요구된다.

## 2) 방송 프로그램의 경쟁력 제고

지상파방송 방송시간 자율화는 전반적인 프로그램 질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로 대의 목소리가 높다. 지상파방송은 과거 방송시간을 연장하여 재방송 프로그램이나 스포츠 오락 프로그램을 집중 편성하여 광고수익을 올리는 데만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방송시간 연장은 그 때 그 때마다 사안별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편성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특별행사나 스포츠중계, 재방송 프로그램을 즉흥적으로 방송해왔다. 방송시간을 규제하지 않고 자율화 한다면 오히려 방송사별로 특성을 살려 획성 있는 편성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방송시간의 규제에 편성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대별로 장르편성이 고정되어 있고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의 편성이



않다. 따라서 방송시간이 확대되고 자율화된다면 정규 편성을 통해 기존방송에서 소외되어 왔던 소수계층을 지향한 소수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고, 또한 한편으로 정규 프로그램 편성에 밀려 방송하지 못했던 새로운 실험적 포맷의 프로그램이나 다큐 등 시청률은 높지 않지만 질 높은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지금까지 시청률 때문에 도태되었던 질 높은 프로그램을 부활시켜 전반적인 방송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방송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 3) 디지털 방송 패러다임의 전환

방송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의 동인은 디지털이며, 변화의 방향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다. 방송의 디지털화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진전되고 다 나아가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진행되면서 방송환경은 다매체, 다채널화 뿐만 아니라 일방향 전송에서 양방향 전송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시청자들은 시,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하여 방송 콘텐츠를 수용할 수 있다. 지상파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인터넷, DMB, IPTV, VOD, 데이터방송등 다양한 서비스들이 시청자 주위를 맴돌고 있다. 거의 무한대로 늘어나는 유료 방송의 채널과 서비스, 시, 공간의 제약을 벗어난 융합서비스들과 시청자를 확보하기 위한 무한경쟁시장에서 지상파방송을 중심에 놓고 방송시간 규제를 논의하는 것은 매우 설득력이 없다. 오늘날 국경을 넘어 세계의 방송과 경쟁해야 하는 지상파 방송의 방송시간 자율화는 너무나 뒤늦은 감이 있다.

## 4. 자율화 정책 방안

방송시간 연장 문제는 그동안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고 찬, 반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지만 지금의 방송시간 규제 논의가 너무나 빠르게 변해가는 방송환경과 대조적으로 너무나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방송시간의 규제는 시대에 맞지 않다.

방송위원회는 2002년 4월과 2003년 1월 지상파방송 방송운용시간 연장정책에 대한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수렴을 한 바 있다. 2003년 지상파 방송운용시간에 관한 공청회에서 수용자 복지 제고 및 지상파 방송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상파 방송

운용시간의 자율화를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방송운용시간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KBS1부터 전면 자율화를 시행하고 2003년 가을개편부터 단계적으로 시간 연장을 확대하여 2005년 봄개편시에는 완전자율화를 제안하였다. 1단계는 2003년 가을 개편시 낮 2시간, 밤 1시간 총 3시간 확대하고 2004년 가을 개편시 낮 2시간, 밤 1시간 총 3시간을 연장하고 3단계로 2005년 가을 개편시 밤시간 총3시간 연장하고, 1단계는 우선 실시하되, 2, 3 단계는 단계별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최소화해 추진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후 방송위원회에서 방송운용시간 연장에 대한 가시적인 정책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상파방송의 방송시간 자율화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이나 시행시기와 방법에 대한 논란은 여전이 계속되고 있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상파방송의 방송시간 자율화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방송3사는 방송시간 연장승인신청을 통해 일일 평균 3시간씩 연장방송을 해오고 있기때문에 공식적으로 방송시간 연장을 허용하여 행정낭비를 줄일 필요가 있으며, 또한 금년말에 서비스 예정인 지상파 DMB 출범시까지의 방송시간 연장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방송시간자율화는 방송시간연장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와 우려들을 고려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광고가 없고 국가재난방송의 주관방송인 KBS1의 경우 방송시간 자율화를 당장 실시할 수 있을 것이고, KBS2, MBC, SBS는 일정정도 시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상파 DMB는 금년 후반기에 사업자추천, 허가가 완료되면 금년말부터 내년초까지 준비기간과 시험방송을 거쳐 내년 후반기에는 본격적인 서비스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상파방송의 시간연장은 지상파 DMB서비스실시에 맞춰, 금년 가을개편을 시점으로 내년 봄 개편까지 단계적으로 방송시간을 늘려가다 내년 가을 개편시 완전자율화하는 방안이 바람직 할 것이다.

<표 2> 방송시간 자율화 단계적 실시방안

구분	시행시기	해당시간	비고
제 1단계	2005년가을개편	낮 12:00-14:00 밤 01:00-02:00	총3시간 연장 지상파DMB준비시기
제 2단계	2006년 봄개편	낮14:00-16:00 밤 02:0003:00	총3시간 연장 지상파DMB 시험방송
제 3단계	2006년 가을개편	밤03:00-06:00	방송운용시간전면자율화 지상파 DMB서비스본 격화

물론 방송시간 자율화에는 방송 프로그램의 질을 담보하는 조건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방송시간의 연장이 방송프로그램이 질적인 향상으로 연결될수 있도록 편성상의 조건을 전제해야 할 것이다. 재방송 프로그램과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제한하고 다양한 수용자층, 소외계층 수용자층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과 실험적 프로그램 포맷 개발을 위한 편성배려의 의무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방송시간운영의 자율화가 대해 방송사에게 오락이나 재방송위주로 광고수익을 올리는 기회가 아니라 새로운 시간대 개척이라는 기회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오명환외 (1989). 종일방송의 의의와 필요성에 관한 연구, MBC
- 윤석년 (2004). 지상파방송 방송시간 규제의 문제점, 방송협회정책토론회.
- 최충웅 (2002). 지상파방송의 방송운용시간 현황과 정책방안, 방송위원회 전문가 토론회.
- (2004). 지상파방송 운용시간 현황과 자율화 방안. 방송협회정책토론회.
- 방송위원회 (2003). 지상파 방송 운용시간에 관한 공청회자료.
- 방송위원회 (2005). 방송시간연장승인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